



기독일보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44호

“수술 없는 성별정정·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반대”

고신·대신·합신 동성애대책위 및 대사회위 기자회견

예장 고신대신합신 측은 동성애대책위원회 및 대사회위원회가 최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별정정,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장 대신 측(총회장 임병무 목사)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황화진 목사)가 주관했고, 예장 합신 측 동성애대책위원회와 고신 측 대사회위원회가 함께 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3개 교단 측은 성명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의 성별정정 허용은 고스란히 선량하고 연약한 여성들의 피해로 주어질 것”이라며

“이것은 예상치 못했다. 외국의 사례에 이미 나타난 현실”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 커플에게 사실상 관계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는 굳이 법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을 떠난 판결”이라며 “이러한 법리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

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두 남성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 의하면 혼인은 반드시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성립한다”며 “그러나 본 사건은 판결 여하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이들은 “대법원은 ‘동성 동거인에게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판결함으로써, 대법원이 양심과 상식에 부합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임을 명확히 보여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 고신·대신·합신의 동성애대책위원회·대사회위원회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日북한인권운동 시조’ 오가와 교수, ‘물망초인 상’ 수상

오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시상식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전 동국대교수가 일본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84) 명예교수를 제3회 ‘물망초인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물망초는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1억 원을 기부받아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10년 이상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 국군포로나 납북자 구출에 헌신한 이 또는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 중 한 명을 선발해 매년 5월 물망초의 날에 ‘물망초인 상’을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물망초에 따르면 중국철학의 대가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오가와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애 행동 모임)’을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나 오가와 교수는 젊었을 때 좌파 지식인이었다고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제일 한국인 복수를 지지하던 학생이었다고

사회주의를 동경하던 오가와 교수가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은 1993년 8월 도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일이었다고 물망초는 전했다.

이 모임에서 식당 여주인이 ‘복송송을 탄 세 아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고생하다 한 명은 죽었다는 소식을 한참 뒤에야 들었다’는 증언을 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은 ‘오빠가 정치범으로 체포돼 숨진 사실을 알고 나서 조총련에 2000만 엔을 바치고 올케를 구출했다는 증



일본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84) 명예교수 © 물망초

언도 했다. 그 오빠라는 여성은 평양방송의 일꾼이 아니라운사로 활동하던 재일교포였다.

그날 오가와 교수는 이런 증언을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 그 후에도 ‘지식천국’이라는 북한으로 떠났던 북송자들의 일본 가족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대동소이했다고 물망초는 전했다.

물망초는 “특히 강제수용소에 대한 증언은 젊은 지식인의 뇌리를 흔들었다”며 “지식인으로서 침묵할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가 계속 그를 괴롭혔다”고 했다.

이어 “이들을 복송시킨 일본인은 물론 처참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결심했다”며 “1년여 고민하던 도쿄대 오가와 교수는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고 설명했다.

‘복송교포 가족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목표를

내건 이 단체는 강연회나 시위, 청원 등의 방법으로 일본 정부 등에 호소했다.

오가와 교수는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인권 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였고,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애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 넘는 노령에도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끊임 없는 오가와 교수의 활동은 그에게 ‘북한인권운동의 시조(始祖)’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다고 물망초는 전했다.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북한인권영화제’도 오가와 교수를 비롯한 야마다 후미야카(76) 오사카경제대학 교수, 사카이 히로야키 전 산케이신문 편집위원 등 수십 년 동안 일본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지식인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북한인권영화제가 2019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제1회 물망초인 상은 폴란드 태생의 북한인권운동가 요안나 호사나씨가, 제2회 물망초인 상은 최성룡 납북자가족회장이 수상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물망초인 상 시상식은 오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리며, 시상식 외에도 전 평양음대 교수 황상혁 피아니스트의 공연과 오가와 교수의 발표에 이어 물망초 총회도 진행된다.

물망초는 2012년 통일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인 국군포로 구출 및 정착지원, 탈북청소년 교육과 장학금지급,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지원 및 교육, 물망초합창단 등 다양한 통일운동과 북한인권개선 및 진전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DEI, 특정 집단·계층 위해 역차별 조장”

정일권 박사, 서울대 노아팀(NCA)·인권윤리포럼 주최 노아세계관강연회서 발제

서울대 노아팀(NCA)과 인권윤리포럼 후원으로 노아세계관강연회가 최근 서울대에서 열렸다. 앞서 서울대 다양성위원회는 오는 20~24일까지 SNU Cultural Diversity Week를 실시하고 ‘다양성 이슈화(Diversity Matters)’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아세계관강연회 측은 다양성을 빌미로 젠더이슈를 부각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정일권 박사

주최 측은 “미국 등 서구에서 추진되어 온 DEI(Diversity 다양성, Equity 형평성, Inclusion 포용성) 정책은 원래 보편적 인권윤리에서 벗어나 동성애 성취 운동으로 변질된 것”이라며 “향후 강력한 DEI 운동의 여파로 서울대 등 각 대학의 다양성(포용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양성평등의 성격 가치관에 반하는 양성해체 젠더정책이 규범화될 수도 있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교학 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날 DEI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DEI 정책은 비판적 인종이론(CRT, Critical Race Theory)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DEI는 일종의 인종 막시즘, 즉 마오이즘과 독일 나치즘과 유사한 정치운동”이라고 했다.

이어 “흑인, 무슬림, 동성애자, 하마스를 지지하고 백인서구문명을 타도하는 반능력주의”라며 “DEI 정책은 다양성을 주장하나 실상은 반자유주의이며 형평성을 표방하나 실체는 사회주의적 결과 평등을 지향하며 포용성을 내세우나 오히려 사

회적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했다.

특히 “DEI 정책은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위한 편협한 역차별을 조장하며 배타적 인종주의를 조장하고 선동한다”며 “서구 사회는 이러한 DEI 정책을 재고하거나 폐지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2023년에 그간 수십 년 동안 존속해 온 DEI 정책의 근간인 Affirmative Action(적극적 우대조치)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8개주에서 DEI 정책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마당에 국내 대학에서 다양성을 명분으로 이러한 인종주의적 DEI 정책을 폐는 것은 서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극심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올해 각 대학 다양성위원회를 중심으로 DEI 정책을 확대해서 종전의 서울대 인권헌장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공론화하여 대처해야 한다(신문 등 기고문, 논평, 포럼 등)” 그리고 다양성을 명분으로 DEI 정책 중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 등 성체제 젠더주의를 내포하는 용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몽할 필요가 절실하다”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노형구 기자

청사협, 2024 청소년 사역 TED 세미나 개최 >> 7면

김진연 “워십드라마가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 22면



PRUGIO

강남 20분대! 용산 10분대! 여의도 10분대!

서울의 중심에 살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강남·용산·여의도의 가치를 모두 누리는 집!



강남생활권 일반분양 아파트

-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

14, 15구역
신통기회 확정
및 모아타운선정

계약금 정액제
1천만원

3천만원 상당
옵션 무상제공

거주의무 **無**
청약통장

59㎡A·B / 74㎡A / 84㎡A·B·C 총 771세대

02)575-0771